

'국내 최장' 출렁다리 건립

순창군, 10월 준공 목표

순창군의 랜드마크가 될 체계산 출렁다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군은 적성면 체계산에 조성 중인 270m 출렁다리 공사를 지난해 7월 착공, 10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25%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항중이라고 밝혔다. 체계산 출렁다리는 총 사업비 78억원을 투입해 체계산 중턱 75~90m 지점에 건립하고 있는 구름다리다. 군은 주변에 어드벤처 전망대 등을 비롯한 주차장 500여대 확보, 화장실 등을 조성해 순창군의 대표 관광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체계산 출렁다리는 국내에서 가장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경기도 파주 마장호수 출렁다리(220m) 보다 50m가량 길다. 출렁다리의 나뭇잎 15m로, 이는 아파트 5층 높이에 해당된다. 실제 출렁다리가 준공되면, 도보시 관광객에게 아찔한 스릴감을 제공할 것으로



순창군의 랜드마크가 될 체계산 출렁다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예상된다. 오는 10월에 완공되어, 국내 최장 출렁다리라는 타이틀로 유명세를 타다면 관광객 유입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으로 군 측은 보고 있다. 이외에도 출렁다리에서 바라보는 적성면 들녘이 온통 유색변 장관이어서 또 하나의 볼거리 제공으로 500만명 관광객 유치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와. 또한 군은 순창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 등산객들을 출렁다리로의 유입을 통해 동계 장군목까지 이어지는 1박 2일 체류형 관광모델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인근지역 산업화 구축에 기여할 전망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한국대표여행사연합회와 업무협약

남원시는 7일 관광후 600년을 맞아 600만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대표여행사연합회(이하 연합)를 초청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일 일정으로 팸투어를 진행했다. 남원시와 연합은 남원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여행상품을 추진해 600만 관광객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으며, 연합은 전국 각지의 국내관광 전문여행사 51여

개사로 구성되어 있고 100만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남원의 주요 관광지인 다채로운 관광체계의 팸투어는 연합 유커석 회장 등 30명이 참가했으며, 남원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기존의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팸투어는 관광투어를 시작으로 옛 철길이 그대로 남아있는 감성적 여행

코스 서도역과, 혼불문화관과 지리산 둘레길 걷기, 4월부터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 될 춘향테마파크에서의 볼거리 등을 미리 체험해 봤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관광후 600년을 맞아 6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수도 권지역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한 서울 남원관광설명회를 실시하고, 여행사 인센티브지급 확대 등 남원이 가지고 있는 매력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관광상품개발과 지역의 관광자원을 알리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생활물가 안정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임실군은 소비자 물가안정 도모 및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 하고자 오는 22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 추진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착한가격과 위생상태, 친절환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업소로 행정안전부와 임실군이 지정하게 되며 현재 군은 9개

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운영중에 있다. 착한가격업소 신규 신청대상은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등 관내 개인서비스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소와 지방세 체납 업소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표찰 및 가격표시판 제작지원, 전기안전점검,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신청은 임실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여 임실군청 경제교통과(640-2404)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여성문화체험교실 으뜸 프로그램 자리매김

임실군이 건전한 여가선용과 여성 활력 제고를 위한 2019년 여성문화체험교실이 열린 호응속에 으뜸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여성문화체험교실은 여성들의 선호도가 높은 실용가치가 높은 법안공예, 퀼트공예, 도자기공예 3과목에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농촌 여성들이

취미생활을 즐기며 소통할 수 있는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중민 체육청소년과장은 "자기능력 개발과 문화적 역량을 고취시키는 데 여성문화 체험교실이 바란다"며 "여성들이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이환주 남원시장은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리더십 강화 특강을 벌였다.

중간 관리자 리더십 강화

이환주 남원시장, 6급 공무원 대상 특강

이환주 남원시장은 7일 6급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리더십 강화 특강을 갖고 민선7기 시정발전과 조직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다시 한번 불어넣었다. 이날 특강에는 6급 담당공무원(무보직 포함)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 시장은 '우리가 남원시 행정의 허리이다'는 주제로 중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뒤돌아보고 소통하는 시간과 20여 년의 공직경험과 노하우를 생생히 풀어내 6급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이 시장은 중간관리자는 몸이 열 개라도 바랄 수밖에 없으며, 조직부에서는 행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맥가이버형 공무원을 요구하고 있기에 중간관리자는 조직내에서 구성원의 직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팔방미인형 능력, 후배공무원들은 변혁은 아이디어로 어려운 문제와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 주는 빅브러더스형(큰형님)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이러한 시대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개발과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유대인의 후츠파(Chutzpah) 교육법을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후츠파는 뻔뻔한, 당당한, 주제넘은 등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로 유대인이 지향하는 7가지 정신인 권위에 대한 질문, 형식타파, 쉼과 어울림, 위험감수, 목표지향의 정신, 끈질김, 실패학습을 말한다. 남원시 6급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약 33%를 차지해 남원시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허리이며, 이 시장이 남원시장에 취임한 뒤 처음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도시재생대학 6기 개강

남원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원도심(동충동, 죽향동)의 주민공동체 조직 및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시작된 남원시 도시재생대학은 2016년 10월 1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3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들은 창업에 유용한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창업의 꿈을 이루기도 하였다. 취득한 자격증을 토대로 사회적 경제교육을 더해 협동조합을 준비중이다. 이번 제6기는 기획 단계부터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양질의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내용을 공모 받아 이를 반영해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인 '도

시재생 차세대 리더 콜로퀴엄'을 비롯하여 전체 8개의 강좌, 102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8주 동안 진행했다. 특히 이번 제6기 도시재생대학 개강식은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8일 18시 30분 남원문화원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며, 전주 팔복예술공장 황순우 총감독의 특강과 함께해 그 의미가 깊을 예정이다. 황순우 총감독은 25년간 방치되어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홍물터인 테이프공장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 시켰고, 인천아트플랫폼, 삼산동 마을 만들기 등에 참여한 도시재생전문가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지역 매아리

남원시 남원고용복지+센터

홍보캠페인 전개

남원시(주민복지과장 강환구)는 3월 한달 동안 남원고용복지+센터, 남원시(복지지원팀, 취업알선센터, 여성새일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복지센터 등 4개 기관과 함께 관내 아파트 단지를 직접 찾아가 남원고용복지+센터 집중홍보 캠페인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올해 시정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배우 친절한 남원시정 만들기'의 일환으로, 편안하고 친절한 행정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평이근민(平易近民)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먼저 도봉동, 노안동, 금동, 향교동 등 서민층 거주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공문 발송을 통한 협조를 얻어 주민에게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단지 출입구, 승강기 등에 홍보물을 게시하는 한편, 놀이터·마트·경로당 등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 즉석 상담을 진행하거나 센터 위치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개소한 남원고용복지+센터는 2016년 6월 개소한 이래 고용, 복지, 서민금융 등의 상담과 필요한 도움을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다. 2018년 고용노동부 평가결과 취업실적 311건으로 목표 464% 초과달성으로 우수센터 선정 및 전국 5개 그룹 97개 고용복지+센터 중 참여기관 간 협업 활성화 서비스연계 실적 우수고용복지+센터로 선정되었으며, 호남권 취업성공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전국 최고의 고용복지+센터로 자리매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4월 19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안전문화 정착

순창군이 4월 19일까지 범국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해당 시설물 현장점검 및 군민 참여 자율안전점검 정착에 나선다. 이번에 추진하는 현장점검은 348개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올해는 위험시설물 관련 민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통해 점검결과를 공개하고 책임이명제를 정착화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은 시설물 점검에 주력하는 한편 일 반주택과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율점검표 1만1,000부를 배포하여 군민 스스로가 안전점검을 생활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 한경엽 재난안전과장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외에도 수시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